

기록물법 위반 확실... 직권남용·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

정호성 휴대폰서 '국정 농단' 목인·연루 정황
 '문고리' 3인방 등 수사 결과 따라 운명 갈려
 대통령 직접 수사 18일 최씨 기소 전후 될 듯

박 대통령 어떤 혐의 받나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사건 전개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박 대통령을 향해 치닫하고 있다.

사건의 두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최씨의 국정농단 및 개입 모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루 흔적이 점차 드러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 조사를 자처했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주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개입 실태가 구체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기정사실이 됐다.

이에 따라 최씨의 기소가 예상되는 18일까지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부터 내용,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물론, 포괄적 뇌물죄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고, 일부 증거의 경우 박 대통령도 목인 또는 연루된 정황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흐름으로 보면 애초 예상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시점

은 18일로 예상되는 최 씨의 기소 시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워낙 박 대통령과 엮인 게 많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최 씨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씨가 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전반에 대해 박 대통령과 논의하고, 박 대통령도 이에 동조했다면 그만큼 귀책사유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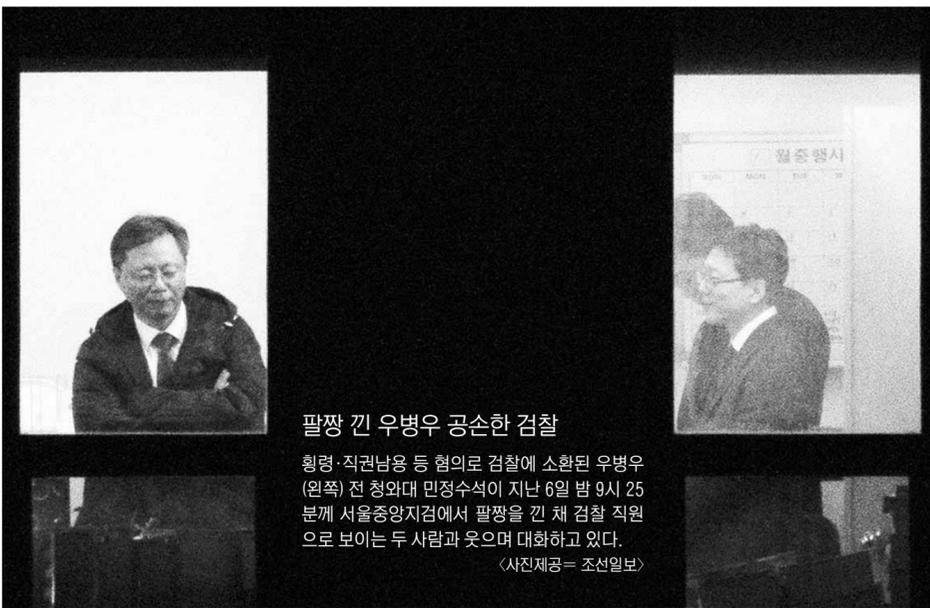
어찌 됐든 사건에 깊숙하게 연관된 것만큼은 확실한 박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 최씨로부터 일부 조력을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한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재단의 기금 조성고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개입 정도, 재단 설립의 목적에 따라 최 씨,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부터 포괄적 뇌물죄까지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과 지근에 있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환, 중국에 도피 중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조사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남아 있는 핵심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박 대통령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팔짱 낀 우병우 공순한 검찰

황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밤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팔짱을 낀 채 검찰 직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조선일보>

우병우 출국 금지... "최순실 사태' 직무유기 수사"

검찰서 팔짱 낀 모습 거센 비판...檢 "휴식 중 대화" 해명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지는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 수행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 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은 일

단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사건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황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검찰 출석 당시 우 전 수석이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겹쳐 여론을 더욱 들끓게 하는 모양새다. 우 전 수석은 전

날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한동안 기자들을 쏘아 댔다.

그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기 전 수사팀 장실에서 차를 대접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져 여론의 질책을 받아 검찰은 해명하는 데 진땀을 흘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당시 조사 중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간 사이 후배 검사·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 면담과 관련해선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조사 전 차를 대접받았다"면서 특별히 대우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단체 "최순실·차은택 문화전당 개입 수사하라"

광주문화예술단체는 "박근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을 왜곡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광주민예총과 민미협 광주지회, 아시아 문화전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모임, 참여자21, 광주미협 등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화전당 지금의 모습으로

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순실·차은택 일당이 문화전당까지 유린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최순실 일당의 대행사로 전락해버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전당은 전면적 쇄신과 함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기자 penfoot@

해외동포 촛불 든다

미·독·불·영 등서 주말 집회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선언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세계 각층의 시국선언과 집회가 7일에도 계속됐다.

서울대 교수 728명은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는 728명이다. 전체 교수 2200여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번의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문은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세 인식마저 안일했다"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전주고 광주정의평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남동성당까지 도심 행진을 펼친 뒤 시국미사를 열었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체육 시민단체들도 7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체육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육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특별검사 조사를 청하고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뉴욕,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독일 프랑크푸르트, 캐나다 토론토, 프랑스 스트라스 지역 동포들은 오는 11일 오후 현지에서 촛불집회와 시국도론회, 박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토요일인 12일에는 미국 델러스·북가주·시카고·애틀랜타, 독일 베를린·슈투트가르트·뮌헨, 영국 맨체스터, 캐나다 토론토·호주 시드니, 일본 오사카 동포 등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특히 호주 동포들은 이날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박명성 창조경제추진단장 돌연 사퇴

"차은택과 친분 없다" 해명

박명성(53·해남 출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1급 상당)이 갑자기 사퇴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자는 7일 "박 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사표를 수리하고 해촉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단장은 3명인데, 이번에 박 전 단장이 5개월만에 물러남에 따라 민간측 단장 2명 중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만 남게 됐

다. 정부측 단장은 조봉환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맡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미래부 관계자는 전했다. 공연단체 신시컴퍼니의 대표 프로듀서인 박 전 단장 "단장 겸 본부장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업에도 지장이 있어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비선실세'로 꼽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 친분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전 단장은 "작년에 회의 석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며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행 문외사건 자재만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m²(10층 전체)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